# 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定價 [illegible] 一個月 六十錢 [illegible]
廣告料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印刷人 金東成


社說

## 日本失業救濟政策과朝鮮

一

現內閣이 새로히 標榜한 各種의 政策가온대 失業救濟政策은 現下日本의 社會狀態에 鑑하야 가장 重要視되는 바이다 그러나 그 具體的方策에 至하야는 자못 多方面의 積極的施設을 要하는 者임으로 決코 容易히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도 日本뿐만 아니라 世界의 모든 資本國家의 共通으로 煩悶하는 問題이다 元來資本主義가 國家的으로 一定한 發達度에 達한 時機에는 販路를 失한 商品이 蓄積되야 이것을 消化할 市場을 海外에 求하게 되는 過程에서 帝國主義的 形態로 發展되는 것은 必然의 經路이나 資本主義 그것이 發達하면 할사록 失業問題는 더욱 重大化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資本經濟自體缺陷이 多數한 失業者를 産出하고 돌이어 그 失業者措處問題에 苦悶하게 되나니 失業問題의 重大度는 資本主義의 發達을 尺度할 수 잇는 것이다 보라! 英國이나 米國과 如히 資本主義가 典型的으로 發達한 나라에서 失業問題가 如何히 重大視되고 잇는가

二

이와가티 資本主義가 發達하야 失業問題가 重大視되는 時期에 잇서 國家는 必然的으로 社會政策을 取하야 이 問題를 解決하려 한다 그럼으로 社會政策의 發達은 곳 資本經濟自體煩悶을 反證하는 것이니 現下日本政府가 失業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 社會政策的施設에 苦心하고 잇는 것은 這間의 消息을 說明하는 것이다 그런데 內務省社會局의 調査統計에 依하면 全國에 約四十萬의 失業者가 有하다는데 그 救濟策에 對한 政府의 闡明한 바를 보면 (一)土木事業을 起하야 純筋肉勞働者의 失業을 救濟코자 하나 財產關係로 因하야 積極的新施設이나 民間事業의 物的援助가 거의 不能의 狀態에 잇서 前途가 樂觀을 不許한다 하엿고 (二)起債와 各機關의 充實로써 緩和코자 하나 財政緊縮의 關係上 一般的起債가 困難함으로 一部地方債를 起하야 應急의 策을 取함에 不過하게 될 것이오 機關ㅣ 各地職業紹介所가튼 것을 多少間 擴充 또 普及케 하야 緩和策을 講究한다 하엿고 그 다음 가장 高調되는 것은 朝鮮人의 渡來를 制限하는 同時에 海外移民을 積極的으로 獎勵할 것이라 하엿다 그리고 失業救濟基金制度와 아울러 失業保險制度等 種種의 目論見을 말하엿스나 畢竟 目下에 切迫한 失業問題를 救濟 또 防止하는데 迂遠한 方策의 不過할 것이니 結局 가장 有効한 것은 朝鮮人渡航制限과 移民獎勵策에 잇슬 것이다

三

그럼으로 日本政府의 失業救濟政策을 實施하게 되는 反面에 朝鮮은 直接 或은 間接으로 莫大한 苦痛을 늣기게 된다 朝鮮人의 渡日을 制限하는 同時에 朝鮮人失業者가 그만큼 朝鮮에 滯在하게 될 것이오 日本人의 移住가 또한 그만큼 增加할 것은 明白한 結論이다 그런데 國際明에 비록 朝鮮人의 渡航을 制限함에는 朝鮮에서 産業을 興하도록 努力할 것을 말하엿고 植民은 漠然히 海外植民을 論하엿스나 朝鮮에서 多數한 失業者에게 産業을 興할 餘裕가 업는 것도 事實이지마는 朝鮮總督府當局者亦是 何等의 誠意가 無하니 日本으로 漂浪할 者가 南北滿洲로 驅逐되는 外에 道理가 無할 것이 아닌가 또 日本의 海外植民은 到處에서 排斥을 當하는 터로 日本人의 安全地帶인 朝鮮에로 多數가 移住하게 될 것은 自然의 趨勢일 것이다 現下全體가 失業者로서 生活의 不安이 極度에 達한 朝鮮에 이와 가튼 影響이 波及되는 것은 實로 重大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업다 當局者는 그 對策이 如何한가

## 獨逸大統領就任式 來月九日擧行乎

(伯林二十八日發) 獨逸新大統領『힌덴부르히』元帥의 就任式은 아마 五月九日로써 擧行할터이리라더라

## 伯林政界의 觀測 當分間은 政局에 無變化

(나우엔二十八日發) 新히 獨逸大統領에 當選된『힌덴부르히』元帥의 就任은 五月十日前에는 行치 못할듯하니 그는 全國의 投票를 全部伯林으로 蒐集하야 一一調査且對照하지 안으면 不可한 外닭이다 그런데 伯林政界에서 一般으로 信하는 바에 依하면 元帥는『루터』內閣을 留任케 할터이나 中央黨出身인 勞働長官『브라운』氏及民主黨出身인 國防長官의 留任은 多少疑問이라고 解한다 또 元帥는 當分間 政局에 何等重大한 變化를 企圖치 안흐리라고 一般은 信하는 中이더라

大統領選擧의 結果에 對하야 政府側의 公表는 左와 如하더라

一千四百六十一萬九千五百十六票 『힌덴부르히』元帥
一千三百七十三萬八千四百二十六票 『맑스』氏
百九十一萬五千五百六十八票 『텔만』氏

## 佛紙의 論評

(巴里二十七日發) 佛國의 主要한 新聞은『힌덴부르히』의 大統領當選에 對하야 論評을 試하엿는데 論調는 大體로 同一한 바 氏의 結果는 佛國에 잇서서 不利益할 것은 업스나 다만 獨逸은 漸次世界의 眼前에서 假面을 脫한 것이라고 말하엿더라

## 選擧結果公報

(東京電) 外務省着電에 依하면 二十六日에 執行된 第二回獨逸 [illegible] 하엿더라

## 勃國主義者又暴動 自露國資金受取事實明確

(『쏘피아』二十七日發) 勃牙利共産主義者는『아레푸나』市의 劇場과 獨立圖書館에 放火하야 此를 破壞하엿스며 且莫斯科로부터 온 書類가 官憲의 手에 入한바에 依하면 勃牙利陰謀의 首謀者가 勞農當局으로부터 資金을 得한 事實은 變動치 못할 것으로 되엿더라

## 오洲서도 日人排斥 移住者는 加州에서 驅逐當한 者

(紐育二十七日發) 米國『오하이오』州『우이과트』에 잇는『셰로리』田所有者는 五百人의 日本勞働者가 同地에서 一萬五千『에카』의 田을 借入하야 바야흐로 加州로부터 移住코자 함에 對하야 日本人의 侵入이라고 稱하고 政府에 對하야 右防止方法을 取하여 달라는 旨의 請願을 提出하라 한다는데 此等의 日本人은 加州로부터 外人土地私有禁止法으로 因하야 驅逐을 當한 者라고 傳하더라

## 芳澤公使警告로 中國官憲紡織罷業을 取締

(東京電) 某所着電에 依하면 芳澤公使는 二十五日中國外交部에 對하야 靑島紡織罷業의 取締方針을 警告하엿는 故로 中國官憲은 罷業會社의 保護其他에 對하야 日本의 要求와 如히 取締를 行하며 會社와 職工과의 調停에 努力하는 中이라더라

## 晉大使親任狀 捧呈은 五月初旬

(東京電) 露國大使館에 들어 잇는 露國大使『코프』氏는 各方面에 新任人事를 行하야 外交式을 擧行하는 中인데 親任狀捧呈은 外務省과 協議한 結果 來月初旬으로 決定하엿더라

## 藥劑師會法 七月下旬公布

(東京電) 第五十議會에서 紛擾中에 通過된 藥劑師法의 施行細則省令及勅令案은 目下內務省에서 立案中인데 同時에 藥劑師會法도 制定하야 七月下旬에 [illegible]

## 勅議互選規則 近近閣議에 附議

(東京電) 貴族院令改正에 伴한 帝國學士院으로부터 選出하는 勅任議員의 互選規則은 既히 法制局에서 審議立案이 終了되엿는 故로 近近多額納稅議員規則改正案을 決定하야 閣議에 附議할터인데 右에 關한 協議를 爲하야 法制局長官은 二十八日首相官邸로 江木翰長을 訪問要談한 바이 잇섯더라

## 三派小委員會

(東京電) 與黨三派小委員交涉會는 二十八日午後一時衆議院內交室에서 開催하고 左의 事項을 協定하엿더라

一、愛媛縣補欠選擧는 三派協調의 精神으로써 此에 當할事
一、五日午後五時芝紅葉館에서 三派幹部의 懇親會를 開할事
一、五月五日三派主催로 上野精養軒에서 普選祝賀會를 開함에 準備에 對하야 二十九日三派의 準備委員會를 開할事

## 飮料水會社 大合同計劃

(東京電) 從來淸凉飮料水는 金線、三矢『리본』、『시도론』、『따이아몬드』의 四社가 互相協定하야 同一한 步調로 나왓섯스나 自然히 競爭을 免할 수 업슴으로 이에 飮料水會社의 大合同計劃이 生하야 其前提로 金線과 月本麥酒鑛泉의 合同契約이 成하야 來五月八日 正式으로 決定할터이라더라

## 進行中의 列車와 郵局間無線電話

(나우엔二十八日發) 伯林에 資本金九十萬馬克으로 無線電話會社가 設立되엿는데 右會社의 事業은 進行中인 列車間及列車와 地方郵便局間에 無線電話를 設備하는 것으로 旣히 只今外지의 試驗으로는 右設備가 有効한 것을 證明하엿는 故로 爲先伯林漢堡間及伯林『미윤헨』間에 設備하야 公衆用에 供할터이며 又一般도 其設立을 만히 期待하는中이라더라

## 安取買方追證

短期取引安取의 買方은 二十八日前場立會外지에 追證을 納入케 되엇다

## 羅州에서 南鮮庭球開催 期日은 未定

羅州體育會主催와 東亞、本報兩支局主催로 南鮮庭球大會를 開催한다는데 모든 規定은 아래와 갓다더라(羅州)

一、參加資格 全羅慶尙忠淸各道南北道男女靑年及少年團 但一團은 三組로 하되 團長一人을 要함
一、時日 追後發表함
一、參加金 靑年團三圓 少年團二圓
一、場所 羅州靑年會코ー트
一、申請場所 朝鮮日報羅州支局
一、申請期日 五月二十日外지

## 二次에 二百餘石分配 任實晋氏의 特志

任實郡任實面二道里 晋征碩氏는 去二月十六日에 租百石을 義捐하야 郡內一般窮民을 救濟하고 今月二十日에는 또 任實面內窮民을 救濟하여 달라고 正租百四十石을 面所에 委托하엿는데 이와가티 不少한 金品을 二次나 義捐한 것은 近來드문 慈善이라하야 一般의 稱頌이 藉藉하다더라(任實)

## 面民의 合面希望 地勢其他便利로

井邑郡甕東面巡査駐在所를 廢止하야 今月二十五日에 泰仁面에 付屬하얏는데 此를 動機로 한 一般面民들은 雜役의 省減은 勿論이오 地勢의 便利를 보아서 甕東面을 泰林面은 泰仁面에 付屬되기를 切望한다더라(泰仁)

## 아러타少年會 어린이날紀念準備

去二十五日에 全北泰仁邑內普通學校內에서 아러타少年會의 臨時總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

一、五月一日 어린이데에 午後四時부터 旗行列을 行케할
一、同日午後八時부터 [illegible]에서 雄辯大會를 開催할
一、餘興으로 歌劇大會를 開催할
一、會員의 [illegible] 右會에 臨할
一、其他事項은 臨時討議할 (泰仁)

## 長水長溪間 自動車定期通行

全北長水郡邑內自動車部와 鎭安郡邑內自動車部에서는 長水郡長溪場의 停留所를 廢止하고 每日兩方에서 定期로 通行하는 同時에 郵便物도 同自動車로 運搬한다더라(長水)

## 陽岳學堂曙光 鄭氏熱誠으로

全北長水郡溪北面陽岳里는 窮僻한 山間으로 普通學校距里가 三里以上이나 됨으로 兒童의 通學이 極難하야 該里人士들은 遺憾으로 生覺하던바 昨年에 本里鄭寅禧氏發起로 私設學堂을 設立하고 敎授하야 오든바 成績이 매우 良好함으로 今年度에는 入學志願者가 二十餘名에 達하얏다더라(長水)

## 濟州警察의 奇怪한命令 救濟金은 官廳으로 보내라 不然이면 取締

濟州島溜世面金寧里에서는 悲慘한 同胞를 爲하야 救濟金募集에 活動한 結果 이미 百二十六圓九十三錢을 募集하엿슴으로 卽時京城救濟會로 送付하려고 하는 中 意外에 濟州島警察署에서는 該地方所管郡廳으로 送付치 아니하면 不許한다 함으로 不得已 團員一同은 痛歎을 不禁하다가 四月十日에 本社經由로 七十圓은 付送하고 餘在金은 全南道廳으로 付送하얏다더라(濟州)

## 呂氏의 美擧 五百餘戶의 戶稅를 自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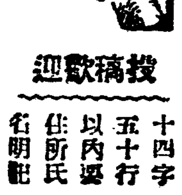
忠北永同郡鶴山面池內里에 사는 呂圭圓氏는 昨年에 前無한 旱災로 因하야 饑饉에 부두지지는 面內極貧者五百餘戶의 今年春期戶稅 三百二十餘圓을 自擔하엿다는데 氏는 결우 自作農으로 生活하는 程度일뿐 아니라 本來부터 慈善心이 豐富한 터임으로 附近人士의 稱頌이 藉藉하다더라(永同)

## 莊子靑年總會

全南務安郡莊子靑年會에서는 新事業方針을 討議코자 去二十二日에 臨時總會를 開催한바 會員의 出席이 豫定에 達치 못하야 同二十五日로 延期한 後 爲先準備會를 開催하고 本會의 一部事業인 勞農會則起草委員으로 金鏞燮、崔奎瑞、鄭根澤 其他數人을 選定하야 臨時大會前日外지에 會則起案을 準備會로 回付하야 修正하기로 하고 習島小作運動과 互相提携하는 同時에 同會入監同伴의 私食費를 辦出키로 決議한 後 閉會하엿더라(木浦)

## 金氏의 稱頌 全北井邑

郡泰仁面洛陽里 金允瑞氏는 家產이 별로 饒足치도 못한 中에 昨年旱害로 因하야 種租가 업는 同里窮戶에게 所作農耕地面積에 依하야 去二十四日로부터 二十五日外지 正租五十餘石을 無利息配付한 바 附近住民들은 稱頌한다더라(泰仁)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 麗水下馱君에게 戒함

◇麗水郡南面 [illegible]의 深洲軍參謀長인 下馱君아 君이 當初물건너로부터 우리 朝鮮에 來任한 目的이 致富成金하는 以外에는 何等他意가 無할진대 人格上體面이나 個人間道德을 足히 써 言論할 餘地가 업지마는 君의 前後의 所爲가 너무나 陰險悖惡함에야 엇지 一言으로써 戒함이 無하랴

◇君이 年前本郡廳在職當時에 幾多의 不法行動은 一一히 枚擧키 難하거니와 官職에 從事함을 奇貨로 삼고 深浦里『地曳網免許漁業權』을 奪取코자 하는 陰謀로 前免許者趙君과 部落民을 離間衝突케 하야 趙君에게 無數한 恐怖를 感케 한 後 裡面으로 趙君을 說服하야 該權利를 廉價買收하는 同時에 官職을 辭退하고 深浦里에서 免許漁業에 從事하야 每年莫大한 利益을 得한 結果 巨萬의 財產을 積蓄한 者가 안인가

◇그러고도 무엇이 不足하야 또다시 漁夫의 利益을 得코자 하는 野慾으로써 南面問題의 發生을 奇貨로 [illegible] 이고 前科가 有한 無賴輩를 敎唆煽動하야 幾多의 部落民을 鬪爭의 渦中에 陷케 하야 漸次死地에 陷하게 함을 보고 心獨喜自負하야 人의 不幸을 幸으로 역이니 아모리 人面獸心인 君이라할지라도 마음에 快할 것이 무엇인가

◇元來本問題의 原因이 敎唆煽動을 하는 君만도 못한 關係者의 自取한 禍인즉 他人을 怨尤할 必要가 업지마는 言必稱先覺者로 自處하는 下馱君中一人의 行動인 外닭에 一層可憎하다 君아 白衣同胞로부터 더 來口錢金의 餘殃을 免코저 하거던 速히 물건너로 三十六計를 하라 急急如律令([illegible]生)

## 金氏의 特志 全北長水

郡溪南面裕谷里 金昌敍氏는 元來慈善心이 多大한바 昨年旱災로 因하야 餓死者가 續出함으로 常遺憾으로 생각하야 救濟에 努力하든바 今番本里窮民七十四戶에 對하야 本年度第一期分戶稅金 五十六圓三十六錢을 救助納付하얏슴으로 一般의 稱頌이 藉藉하다더라(長水)

## 淸州署의 各種檢査

淸州署에서는 요사이 日氣가 漸漸溫和하야 옴을 따라 各種病菌의 發生을 豫防코자 爲先第一着으로 方今淸凉飮料水(麥酒사이다)販賣業者等을 一齊檢査中이며 共同井戶의 水質檢査도 着手하엿다더라(淸州)

## 殷氏의 施惠 全北井邑

郡甕東面梨池里 殷富日氏(六八)는 本來不贍의 家產으로 生活을 維持하든바 本郡山外面等地에 自己所有土地小作人에게 對하야 昨年度에 收納한 賭租를 舍音平沙里 權良五氏에게 留置하엿다가 今月十五日頃에 小作人全部에게 收納한 賭租를 一一히 無償還給하야 如此歉年의 凄惡을 補給하고 窮貧을 救恤한 正租가 三十餘石에 至하엿다는데 同小作人은 該氏의 施惠를 不忘키 爲하야 石碑를 立하얏다더라(泰仁)

## 大德公普落成式

新築中이든 長興郡大德公立普通學校의 落成式을 去二十三日에 擧行하엿다더라(長興)

## 光東講習復活

慶南固城郡東海面甘西里에 잇는 光東講習會는 同面內昨年가을에 有志 朴永甲、李釆甲、李武甲、黃翔秀及同面面長金祥圭 諸氏의 發起로 甘西里、鳳岩里、外谷里、內谷里四處가 協力하야 一千餘圓의 巨額으로 校舍十餘間을 新建築하야 熱心敎授하야 오든 中 그 後로는 不得已 事故에 因하야 中途의 廢校함에 이르럿든 바 그를 큰 遺憾으로 생각한 朴永甲、李釆甲、李武甲、金允完 四氏는 다시 善後策을 協議한 結果 講師兩氏의 手當은 四氏의 負擔으로 其他經費는 學父兄諸氏가 負擔키로 決議하고 不日開校한다더라(固城)

## 敎員聯盟會 募集한 救濟金 本社로 送致

今般釜山私立敎員聯盟會主催로 水晶普通學校、草梁普通學校、龍湖育英義塾 三校가 聯合하야 饑饉救濟音樂會를 開催한바 入場料金合計 八十四圓八十錢을 朝鮮日報社釜山支局에 依托하야 配付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釜山)

## 安東靑年會 메이데이와 어린이날紀念

慶北安東靑年會에서는 去二十四日午後三時에 同會館에서 定期總會를 開하고 權思潔氏司會로 各部報告가 잇슨 後 任員을 改選하고 時間關係로 여러가지 事項은 臨時總會로 밀우고 곳『메ー데이』와 어린이날을 宣傳하야 徹底히 紀念하기로 滿場一致로 可決되야 또 被選된 委員과 다음과 如히 決定되엇다더라(安東)

◇委員
執行委員 金秀漢 金應鎬 尹世衡 權丙珏 朴永壽 金周漢 金南洙
檢事委員 金鍾燮 權相鎬 權寧洽

◇決議事項
一、維持方針에 關한件
二、會費加盟에 關한件
三、春季運動會開催에 關한件
四、敎鞭事業에 關한件
五、靑年文庫擴張에 關한件
六、會員義務에 關한件
七、當地講習에 關한件

## 消防手의 不平 出動手當金外지 差別이 甚한 外닭

慶南河東消防組에서는 去二十三日春期演習을 擧行한 後 出動手當金支拂에 對하야 朝鮮人消防手側에는 不平이 大端하다는데 그 內容은 一回出動手當金으로 日本人組頭六十錢、朝鮮人副組頭三十錢、日本人小頭四十錢、朝鮮人二十錢、日本人消防手三十錢、朝鮮人十五錢式을 支出하는바 同一한 職務로써 同一히 勞力하는 以上에 朝鮮人과 日本人의 差別한다고 不平이 沸騰하다더라(河東)

## 密陽郵所貯金 朝鮮人은 學生이 多數

慶南密陽城內郵便所에서 取扱한 十三年度業務成績中 貯金通數는 朝鮮人이 日本人에게 比하야 만흐나 金額은 二割에 지나지 못한데 朝鮮人郵便貯金者는 大槪學生인바 昨年에 比하면 約一割이 增加하엿다는데 業務成績을 種別하면 左와 如하다더라(密陽)

| 種類 | 通數 | 金額 |
| --- | --- | --- |
| 通常(引受) | 四〇八、[illegible] | |
| 郵便(配達) | [illegible] | |
| 書留(引受) | [illegible] | |
| 郵便(配達) | [illegible] | |
| 小包(引受) | [illegible] | |
| 郵便(配達) | [illegible] | |
| 爲替(振出) | [illegible] | [illegible] |
| 爲替(拂出) | [illegible] | [illegible] |
| 貯金(預金) | 七、七五六 | 六四、一一九 |
| 貯金(拂渡) | 七、七七一 | 六八、一九五 |
| 振替(拂込) | [illegible] | [illegible] |
| 貯金(拂渡) | 四一八 | 二七一、三一七 |
| 電信(發信) | 五、四一一 | |
| 電信(着信) | 六、九一五 | |
| 電話(市內) | [illegible] | |
| 電話(市外) | 一〇、〇五五 | |

## 河東素劇盛況

慶南河東商務會에서 組織한 素人劇은 雙溪寺의 興行을 마치고 도라와서 河東邑內海苔組合倉庫에서 興行한다 함은 旣히 報道한 바어니와 豫定과 가티 지난 二十四日午後八時부터 幕을 열엇는데 觀衆이 數千名에 達하야 場內에는 立錐의 餘地가 업시 大滿員으로 盛況을 일우엇다더라(河東)

## 新成學院의 發展 有志의 熱誠으로 勞働夜學도 創立

慶南固城郡巨流面新龍里에 잇는 私立新成學院은 大正十一年에 創立하야 有志諸氏의 熱誠으로 그동안 敎育向上에 만흔 貢獻이 잇섯스며 現在學生이 九十餘名에 達하고 基本金이 二千圓에 達하얏스며 今月부터는 勞働夜學을 設立한다는데 講師劉德蒼、姜相涼兩氏의 熱心敎授로 그와가티 發展된 것이라하야 一般의 稱頌이 藉藉하다더라(固城)

## 浦項에 自轉車競技 來五月三日에

慶北浦項에서는 各自轉車商店聯合主催로 來五月三日에 當地兩濱町運動場에서 自轉車競技大會를 開催한다는데 優勝賞은 優勝旗와 七十圓자리 自轉車一臺라 하며 主催側에서는 多數의 申込을 바란다는데 申込場所와 一般手續方法은 아래와 갓다더라

一、申込場所 浦項本町中村自轉車店
一、申込金 每一人一圓五十錢
一、申込期日 五月二日外지 (浦項)

## 金泉少年總會 어린이데紀念決議

金泉少年會에서는 去二十六日午後八時부터 金陵靑年會館內에서 金福潤君의 司會로 總會를 開催하야 여러가지를 討議하고 提案受理中 五月一日은 어린이날인고로 金泉少年會에서도 少年데ー를 祝賀하기로 一致可決되엿다더라(金泉)

## 浦項勞働夜學 五月一日부터 開學

慶北浦項迎日靑年會에서는 同會館에서 來五月一日부터 勞働夜學을 開催하기로 決議하고 方今學生을 募集中이라는데 敎授는 同靑年會幹部 李藏南氏가 無報酬로 하기로 하고 모든 經費는 同靑年會에서 負擔하리라더라(浦項)

## 軍威少年庭球 少年團의 主催와 靑年會後援으로

去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軍威公普코ー트에서 少年庭球大會를 開하얏는데 紅白兩便을 갈너 十歲左右의 어린 選手들의 神妙한 競技는 觀覽者로 하야금 無限한 感想을 주엇다더라(軍威)

## 泗川邑 消防手總辭職 豫算緊縮이 動機

慶南泗川郡泗川面消防手一同은 突然히 總辭職을 하엿다는데 그 總辭職의 理由를 듯건대 近年에는 火災가 頻頻하야 前年例의 豫算으로는 到底히 機具設備와 隊員出動이 不能함으로 前年三百五十圓의 豫算이 드든 것을 今年에는 六百圓으로 하야달라 하얏든 바 郡守朴璨夏氏는 消防役의 要求에 一點의 同情이 업시 例年以下로 自己獨斷的許可書를 發付한바 一般消防員은 突然히 總辭職을 하엿다는데 一部에서는 그의 對策을 講究하고자 五月一日에 當地洙石里大池倉庫에서 會議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討議하리라더라

一、泗川邑消防手總辭職에 對한 理由를 質問할것
二、一般面民의 輿論에 準하야 今後方策을 取할것(泗川)

## 孝令公普落成式 協贊會外지 組織

軍威郡孝令面孝令公普落成式을 來七日에 擧行한다 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地方住民들은 同落成을 祝賀하기 爲하야 協贊會를 組織하고 當日부터 三日間繼續하야 左와 如히 餘興을 設備한다는데 就中白日場은 舊式에 新式을 加味하야 新式間趣味가 津津하도록 한다하며 其外에 各種餘興이 有하다더라(軍威)

◇餘興種類 活動寫眞 樂隊 新派演劇 白日場(新舊式) 天一興行

## 大邱工校募生

大邱工業補習學校는 지난 十三日부로 認可되얏는바 오는 五月一日부터 大邱公立普通學校校舍에서 入學試驗을 施行한다는데 願書提出期限은 四月三十日外지며 試驗科目은 日語、算術、圖畫外지라더라(大邱)

◎大邱公普生遠足 大邱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 二十七日午前九時에 三、四、五、六、學年生은 山格洞으로 一、二學年生은 陳氏坊으로 各遠足次로 往하엿다가 同午後四時頃에 歸校하얏다고(大邱)

◎大邱明新女校遠足 大邱私立明新女學校에서는 지난 二十八日에 一二三四學年生은 앞산미트로 五六學年生은 校長張仁煥氏引率下에 釜山及東萊溫泉으로 遠足을 갓다가 當日無事히 歸校하얏다고(大邱)

## 枇峴女子夜學 廿四日에 進級式

義州郡枇峴面梓馬洞私立普成學校女子夜學部에서는 本月二十四日下午八時에 第二回進級式을 當地禮拜堂內에서 擧行한바 部長申鳳祥氏의 簡單한 式辭가 잇슨 後 進級生三十八人에게 證書授與가 잇섯는데 來賓參席者가 三四百名에 達하야 大盛況裡에 閉式하엿스며 그동안 熱心敎授한 敎員諸氏에게 紀念品贈呈外지 잇섯다더라(枇峴)

## 文化靑年復興 崔氏의 努力으로

黃海道信川郡文化面에서는 距今五年前에 文化靑年會를 創立하얏스나 其間有耶無耶이 되든 中에 當地崔東郁氏의 主唱으로 復興되여 會員은 三十餘名에 達하얏스며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會長 崔東郁 副會長 [illegible]
顧問 康承億 韓昇高 德煥 閔 [illegible] 河永龜 書記 裵永辰 (信川)

## 迎陽公普開校 校長은 金昌勳

黃海道海州郡靑龍面迎陽里에 迎陽公立普通學校를 新設하고자 그곳 面民은 當局에 認可를 申請中이든바 지난 四月十三日에 비로소 海州郡守로부터 認可하얏다는 通知가 잇는 同時에 校長은 前席洞公立普通學校에 訓導로 잇든 金昌勳氏로 內定되여 不日開校할터이라는바 海州에서는 아즉外지 朝鮮사람으로써 公立學校校長이 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더라(海州)

## 文化金組總會 黃海道

信川郡文化金融組合에서는 本月二十二日午後二時부터 當組合倉庫에서 第六回定期總會를 開催한바 當日出席한 組合員은 八百六十餘名에 達하야 大盛況을 일우엇다더라(信川)

## 枇峴金組總會 義州郡

枇峴金融組合第七期定期總會를 去四月廿五日下午三時에 當地公立普通學校에 열고 組合長金正國氏司會로 決算報告가 잇슨 後 左記와 如히 役員을 改選하고 閉會하엿다더라

監事 林英俊 金觀恂 張信祐
評議員 金敬秀 申秉璡 韓仁權 白鏞一 白用廷 金[illegible]祐 崔在祐 金甲說 (枇峴)

## 安東縣金融會總會

安東縣朝鮮人金融會에서는 去二十六日午後一時에 當地普通學校內에서 第三期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大正十二年度財產目錄貸借對照表事業報告書及剩餘金處分案承認의 件을 決議하고 評議員一人을 補選하엿는데 被選된 評議員은 如左하다더라

評議員 李弼鎬 (安東縣)

## 龜城金組總會 平北龜城

龜城金融組合에서는 去二十六日下午二時三十分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서 第十回定期總會를 開催하엿는바 出席人員이 三百餘名에 達하야 金融組合의 大盛況을 呈하엿는데 組合長金鼎鍾氏의 司會로 議事를 進行하야 理事河野藤太郎氏의 剩餘金處分事業報告와 監事張晶喆氏의 監事報告가 잇슨 後 任員手當에 對하야는 組合長四十圓 監事許議員 十五圓式으로 決定되고 組合長 監事許議員任期滿了에 對하야 一便에서는 重任을 主唱하고 一便에서는 改選을 主唱하야 場內는 長時間紛紛하다가 結局組合長은 重任되고 監事許議員은 改選되엿스며 來賓으로는 洪郡守의 祝辭와 [illegible] 表彰式이 잇섯다더라(龜城)

## 南市金組總會 平北龍川

郡南市金融組合에서는 豫定과 如히 去二十六日午後二時에 當地公立學校에서 第六期定期總會를 開하고 左와 如히 順序를 進行하엿다더라

一、事業報告
一、監事의 監査報告
一、決議事項
(가)諸計算書及剩餘金處分案承認의件
(나)組合長選任의件
(다)監事選任의件
(라)許議員選任의件
(마)役員手當支給의件

組合長崔學瀞 監事李用煜 白珊琳 李錫祚諸氏오 許議員은 追後開票하기로 하엿다더라(龍川)

## 메!데이紀念 講演會開催 會寧同志者同盟에서

去二十二日에 會寧同志者同盟에서는 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左記事件을 討議한 後 메ー데이를 紀念키 爲하야 講演會를 開催키로 하엿다는데 演士와 演題는 左와 如하다더라

一、未定 金[illegible]秀
一、未定 李觀官
一、大地의 所有者 金貞煥
一、新人間의 吐露 權基成

◇決議事項
一、靑年運動에 關한件
二、勞働運動에 關한件
三、메ー데이紀念에 關한件 (會寧)

## 全江陵蹴球大會開催 五月三日에

江陵邑錦町布敎堂內에 잇는 江陵佛敎靑年會에서는 全江陵蹴球大會를 開催하야 寂寞한 江陵의 敎育界에 一大光輝를 날리게 되엿는데 試合日字와 場所는 如左하다더라

試合場所 南大川運動場
試合時日 五月三日(日曜)
申込場所 江陵邑錦町布敎堂
申込期限 五月二日外지
主催 江陵佛敎靑年會 (江陵)

## 紛糾中의 釋王寺 平和會를 開催 諸般問題解決?

昨年以來로 咸南安邊郡釋王寺에서는 住持爭奪戰을 爲始하야 內訌과 軋轢이 紛紛하다 함은 이미 本報에 報道된바어니와 其後寺內의 空氣는 자못 險惡하야 老人對老人、靑年對靑年間에 葛藤이 되야 諸般의 惡現狀이 不一함으로 釋王寺有志諸氏間에는 이를 크게 遺憾으로 생각하야 老婆心으로서 寺內에 平和會를 開催하고 一般僧侶가 會集하야 多端의 惡感을 披露한 後 一場打合한 結果 諸般不潔한 空氣가 圓滿裡에서 瓦解되는 同時에 主相鎬의 度牒褫奪外지 解除하여주엇다더라(安邊)

## 辛酉吟社募詩

間島龍井辛酉吟社에서는 過般來懸賞詩題를 募集하여 오든바 間島及關北各地에서의 應募詩는 旣히 相當多數에 達하엿스나 京城及三南地方에서는 一首도 應募가 無함으로 今般募集期限을 來陰四月二十五日外지 延期하고 嶺湖諸士의 多數應募를 期待한다는데 其詩題는『遠時鷄』이오 韻은『[illegible]知期』라더라(間島)

## 元山驛乘降客數

元山驛昨今의 乘車客은 一日平均 五百五十名假量으로 降車客數도 相敵되야 一日의 乘客賃金收入은 一千百餘圓이라고(元山)

## 元山客主組合總會

元山客主組合은 本月二十六日正午에 中淸里鶴岩台山莊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十三年度決算報告、十四年度豫算承認、規約改定等을 決議하고 任員을 改選하엿스며 當選氏名은 如左하다더라

組合長 趙基周 副會長 張寬植 許議員 安廷協 盧鉉萬 金羽相 金永根 鄭兌鉉 裵錫燮 金錫五 (元山)

## 元山에도 十餘名

朝鮮에는 司法代書人이 今日外지 업섯슴으로 司法代書事務를 行政代書人이 自由로 執行하든바 今回 司法代書人을 新設하고 五月一日부터 事務를 執行하게 되야 元山府內에도 十數名의 司法代書人이 許可될터인데 今後로는 裁判所에 提出할 書類의 代書는 司法代書人의 代書가 아니면 안될터이라더라(元山)

## 端川金組總會 端川

端川金融組合에서는 지난 四月二十五日午前十一時에 當地乾端場內에서 第十六回定時總會를 開하고 組合長許文煥氏의 司會下에 決算報告가 잇슨 後 組合長改選問題는 許文煥氏가 再選되고 組合에 對한 理事의 講話와 農業에 對한 道技手室園氏의 講演이 잇섯나 자님 閉會를 하고 이어서 餘興으로 五百餘名이 抽籤을 行한 結果 一等賞(牛一頭)은 李達明氏에게로 돌아갓다더라(端川)

## 春季屠畜慰靈祭

元山府立屠殺場에서는 去二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 春季屠畜慰靈祭를 開催하고 僧侶屠場係員府廳職員各新聞通信記者牛豚肉販賣業者等多數集合하야 讀經裡에 一同이 燒香한 後 茶菓의 饗應이 잇섯고 零時半에 散會하얏다더라(元山)

## 開城에 꼿구경 鐵道公園은 不夜城

開城市街를 西으로 距한 開城鐵道公園은 自來로 桃花와 櫻花의 名所로 花開時節이 되면 一般遊覽客이 晝夜不絶하는 中 近日에 이르러 賞花客을 爲하야 開城電氣會社에서는 多數의 電燈으로 園內全幅을 點燈하야 不夜城을 이루엇는데 每日入場者가 七千에 達한다더라(開城)

## 仁川期米 第二報 (四月廿八日)

## 後場小强

前場阪地三十九圓三十九錢止와 共히 三十五圓九十五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三十九圓四十一錢의 初付로 當地는 三十五圓九十二錢에 場을 始한 後 阪地四十一錢인 三番同事임을 不拘하고 案外硬氣를 待하야 三節九十五錢外지 小戾하더니 四節에 入하야 阪地四十六錢인 五丁反에 와서 噴하야 突破六圓에 〇四錢外지 跳返한 後 阪地五節五十錢으로 五十四錢에 止場함을 件하고 十錢의 最高로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가 十八丁이며 阪仁의 鞘는 三百四十四丁이더라

◇各地止價◇

大阪 東京 兵庫 下關 桑名 名古屋 金澤 熊本 仁川 (後夕)

廿八日後場止: 三九、五四 四〇、七〇 三八、九二 三九、五〇 三八、六三 三八、六〇 三九、二二 三八、五五 三九、五〇 三六、一〇

昨比較: 七高 四高 五高 九低 二高 一低 一一低 一八低 同事 二〇直

◇阪仁氣配◇

大阪 一錢低
仁川 同事

◇阪仁當限納會◇

| | 受渡石數 | 受渡價格 |
| --- | --- | --- |
| 大阪 | 二、〇〇〇石 | 三八、五一錢 |
| 東京 | 三、八〇〇石 | 四〇、一九錢 |

◇各限倸合◇ 二十八日後場

[illegible]

## 大阪場況 二十八日後場

大阪地場況은 地場強氣筋의 買進과 利喰으로 三十九圓四十一錢寄付로 寄場을 始하야 三番同事의 釘付로 地場筋의 小戾合을 示하다가 利喰買로 四十六錢外지 引締될 際에 各地堅調와 共히 賣物이 稀薄하야 五十錢으로 上伸하야 結局投物이 一巡하야 五十四錢에 大引하엿다고

## 開城에 朝鮮音樂大會

開城市內에 在한 中央會館에서 開城靑年會主催로 來五月四五日兩日間 東亞日報開城支局、本社開城支局後援으로 朝鮮樂界에 一流인 李東伯一行을 招聘하야 朝鮮音樂大會를 開催한다는데 收入全部는 同靑年會의 圖書部에 補充한다더라(開城)

## 石門을 寄贈 金浦郡高

村南香山 鄭行默氏는 今般當地金浦公立普通學校正門에 一百五十圓자리 石門을 세워주엇는바 當地人士의 稱頌이 만타더라(金浦)

## 芝山校生來開 高陽郡

漢芝面에 잇는 私立芝山學校三四五學年生七十五名은 去二十六日午前十時三十分着列車로 同校敎員金世顯氏引率下에 來開하야 市內、滿月臺、善竹橋其他名所古蹟을 巡覽한 後 同日午後車로 出發하엿더라(開城)

## 仁川學校許議會 委員會附託으로 査定

旣報한 仁川學校評議會는 去二十七日下午二時부터 中島府尹代理 眞野財務主任司會로 開會되엿는데 開會劈頭부터 特等級新設反對論이 熾烈하엿스나 結局은 提案대로 通過된 後 詳細査定은 全員委員會에 附託하야 逐條査定하기로 可決되야 同三時부터 委員會를 열고 査定審理를 始作하엿다더라(仁川)

## 金浦赤米除却宣傳

京畿道金浦郡에서는 産米의 品質改良과 增殖을 爲하야 本月二十六日부터 郡職員이 管內各面에 總出動하야 大大的으로 赤米除却施行檢査한다는데 그 宣傳方法은 赤米一合에 對하야 抽籤券一枚式을 交付한 後 同抽籤에 依하야 多少의 褒賞을 給한다더라(金浦)

## 開城消組春期演習

開城消防組에서는 去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開城警察署構內에서 春期演習을 擧行하엿는데 來賓의 祝辭及訓示講話가 有한 後 午前一時부터 市內鐵道公園에서 數拾種의 競技와 開城妓生의 餘興이 有하얏다더라(開城)

# 青年一名도押送

## 경남디방에서호송하야 종로서에서취됴중이다

적기시위사건(赤旗示威事件)이니흑귀련맹사건(黑旗聯盟事件)이니하야 방금검거의손을 전조선각디에 버려노코 활동을계속하는종로서고등계에서는이삼일전에경남(慶南)모경찰서에비밀히통첩을발하고종대사건의혐의자인청년한명을잡어압송하여달라하엿든 모양인데 과연작이십팔일저녁일곱시경에경성역에도착의경부선(京釜線)북행렬차로○○디망으로부터김모(金某)라는 나히 이십팔구세가량의 청년한명을압송하여다가약한시동안흑소(黑沼)경부보가담임이되여취됴를햇낸다음에 류치장관계로 애대문경찰서에넘겻다는바이청년에관한사건의내용은절대비밀에 부쳐자세히알수업스나 대개는흑귀련맹사건에 관련이잇는듯추측되며 이청년을 검거하는 동시에 그디방경찰은 그외가택수색까지하야 무정부주의에관한팜푸렛트를다수히압수하여왓다더라

## 民運後援事件

### 집행위원송청하야 시말서를모다바덧다

긔보=인천(仁川)에잇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후원회(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後援會)에서 발표한서면이 보안법위반과 출판법위반이라는 혐의로 당국은 이래활동을 계속중이든바 그외책임자인 김텬회씨는 일시방면은되엇스나 그후 집행위원삼십명을속속 호출하야 일일히시말서를밧기에 전력을다하는듯 하다는바 사건은장차 엇지전개될는지일반은 매우주목중 이라더라(인천)

## 首相暗殺計劃事件 敎唆證據確實乎

### 불원간긔소될듯하다고

가등수상(加藤首相)암살교사죄(暗殺敎唆罪)혐의로 경시텽에구인된 흑룡회(黑龍會)간사 좌등경삼(佐藤慶三)디뎐(池田)과동회장 내뎐량평(內田良平)의삼명은 계속취됴하든중 동경디방재판소 롱천검사(瀧川檢事)는 암살사건을 담당취됴한결과 권긔삼명이 교사한 유력한증거를잡엇다고 전하는데총본(塚本)예심판사는 권긔삼명에대하야 긔소권에 강제처분을하기로하고 구류처분을하얏스나 불원간 긔소될모양이라더라(동경뎐보)

## 韓氏京城에押送

### 흑긔련맹관련인듯

진남포(鎭南浦)경찰서에서지난 이십오일밤 열두시경에 대활동을개시하야 시내삼개소에서 가택수색을 한결과 주의(主義)에관한서적과 문서다수를 압수하는동시에 룡정리(龍井里)에서 한병희(韓炳熙)씨를 구인하야 엄중히 취됴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후한 동서 오십남(五十嵐)순사는 지난이십륙일밤열시에압수된 서류한뭉텅이를 휴대(携帶)하고 경성으로진상하엿는데 아직 그사건의 진상은 알지못하나 탐문한바에의하면 권긔한씨는 십여일권에경성에 올러가 여러동지자 들과가티 흑긔련맹(黑旗聯盟)이란 무정부주의자단테(無政府主義者團體)를 발긔하고도라왓섯다는데 이번에 가택수색을당한집이모다 경성흑긔련맹(黑旗聯盟)의발긔인되는 신흥리(新興里)곽철(郭撤)한두리(漢頭里)리창식(李昌植)제씨의집인것과 권긔한씨가 경성에압송되는덤으로보면흑긔련맹(黑旗聯盟)에 관련된 사건인듯하다더라(진남포)

## 海兵團이煙草密輸

### 문사에서삼백여명검거 중국남방에서수입하여

군함일향(日向)부도(敷島)두척은요사이 중국남방연안을 거치어서좌세보(佐世保)에도라왓슴으로 그군함에탓든 해병에게위로뎍휴가를주어 이십일부터 관문(關門)디방을 통과하는 사람이만케되얏는데 그들의 짐을검사하든중에 의외로 고급연초(高級煙草)를 비밀히수입한사실이 발각되야 아십칠일外지권매법위반(專賣法違反)으로검거된 해병이실로 삼백여명에달하엿는데 그중에는 한사람이 구백개外지 가진사람도잇섯슴으로 계속하야 엄중히검사중인데 경찰편에서는 취됴를마친후 좌세보진수부(佐世保鎭守府)에교섭을 할터이오이와가튼 밀수입사건은실로권례가 업는일로 해병들의무모한 행동에대하야 비난이 만타더라(문사뎐보)

## 江界校生盟休

### 교수방법개선요구 事件은卽時解決

강계공립보통학교(江界公立普通學校)고등과 일년생일동은교수(敎授)방법을 개선하야달라는진정서를 교장에게 데출하고 지난이십이일부터 동이십삼일까지 삼일간을 동교치아니하얏다는데 그원인한 원인은동교에서는교실(敎室)이 협착하야 고등과일이학년을 복식으로 교수한다는데 일학년생도에게도 이학년의 교과서를 교수함으로 일학년생도는 학년의교과서를 교수하야 달라고 요구한것이라는데 교장은 지난이십오일 사무실로학부형제씨를청하야 학생의요구대로 실시하기로 하고원만히해결하엿슴으로 동맹생일동은곳등교하얏다더라(강계)

## 長沙大火

### 천여호소실 손해백만원

이십오일밤중에 중국장사 남문외(中國長沙南門外)에서불이일어나서 천여호를태워버린후 이십육일오후에일으러겨우진화되엿는데손해는약백만원이며불에타죽은사람은 판명된것이 이십삼명이라더라(북경뎐보)

## 第二東拓이잇다고 舍人面小作騷動

### 동텩의토디를사가지고 동텩보다심하게한다고

황해도(黃海道)봉산군(鳳山郡)사인면대룡리(舍人面大龍里)에는데이동텩(第二東拓)이생기여 일대문데가 되여잇다는데, 이제그자세한 사정을들은즉 동텩에서자래에 삼백여석밧든 농장을 황주(黃州)조정금(趙鼎錦)씨에게팔엇는데 조정금씨는 그토디를사가지고는 사음으로 리의렬(李儀烈)씨를두고 자긔친척과친면잇는 사람에게 소작권을이전함으로동시방성(農時方盛)한이때에모자리(苗秧)하나도못하고 소작권을 일허버린소작인일농은 별반방도를 취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겟다고 지금선후책을 강구할뿐아니라 동텩보다 더심한데이동텩이 생기엿스니 적극뎍으로 대항하지아니하면 도뎌히아니되리라고 의론이분분하다더라(사리원)

## 綾州에强盜

### 금품을강탈도주

지난십사일밤 열시경에 전라남도릉주군 도림면구례동(全南綾州郡道林面九禮洞)윤덕수(尹德洙)의집에잇던자가 텰써(鐵片)을들고침입하야 주인을 협박하며현금십오원 팔십전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 이급보를들은 소관경찰서에서는 방금 범인데포에대활동중이라더라(릉주)

## 良民打殺巡査事件

### 복심에서증인심문

자긔집에서먹이는 개를 따렷다고 동리집 로인을구타치사케한 영양(英陽)경찰서 순사좌등리작(佐藤利作)은 대구디방 법원에서 삼년징역을불복하고 지나간이십육일에 대구 복심법원에서 뎐구(田尻)재판장에 개뎡으로 증인심문이잇슨후 폐뎡하엿는데 개뎡일자는 미뎡이라더라(대구)

## 仁川學校費

### 원안대로가결

긔보=유산자에게무겁게징수하고 무산자에게 가볍게징수하자는인천부학교비호별할(仁川學校費戶別割)등급표준 개정안은지난 이십칠일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에서원안대로 가결되엿는데 새로히 등급일급으로된이는 권에일백구십삼원 내든것을삼백륙십오원으로올린것을필두로 이하몃몃재산가는 권에갑절식이나 내게되엿고 그대신에 무산계급은 훨신부담이 가볍게될터인데 원체학교평의원 제씨에대하야 이의가만헛든것과 또 가유산계급에잇는고로올리는것을 달갑지안케녁이든터인데 무산자의원이유산자의원에게동정을표하는 언사를 발하얏슴은매우 이상스러히보엿스나사필귀정이라 엇절수업시 가결되얏스며호등에오르게된이의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一級三六五圓崔鳳三 二級三四圓皆無 五級二一六圓張錫佑 沈能鎭 具昌圭 六級一九〇圓崔應善 七級一六五圓鄭順澤 七級一四〇圓李公雨(仁川)

## 學生致死事件

### 신의주디방법원 합의부로이송해

강계공립 보통학교 데오학년생 리춘호(江界公立普通學校第五學年生李春浩)(二三)이가 동교삼학년생 뎐정강(田井疆)을 사소한일로 구타치사 하얏슴으로 이사건을 강계경찰서에서 취됴중이라함은 이미보도한 바어니와 그사건은 경찰서의 취됴를마치고 신의주디방법원 강계지텽에서 예심(豫審)으로 심리중이더니 지난이십오일에 강계법원지텽도원(稻垣) 예심판사는이 사건을 신의주디방법원합의부(新義州地方法院合議部)로이송하얏는데 가해자리춘호는 불일간신의주로 압송한다더라(강계)

## 木根캔다고 고소를뎨긔

이미보도한 바와가티 장단군진서면 대원리(長湍郡津西面大院里)에잇는 화장사(華藏寺)에서는그사찰안에잇는 승려 리경화(李慶華)배광동(裵光東)리대현(李大玄)최중렬(崔鍾烈)외에속인(俗人)신학묵(申學默)등오인에게 그사찰경비를 보충하기위하야 부근에잇는 산림일부분을매도하얏섯는데 매매당시 계약서에 디상목(地上木)만 판것을권긔오인은 나무뿌리까지 캐야목탄을 만드러팔어먹으러든것이 탄로되야 사중일동과 시비가되여 오동동그 사찰승려일동은 뎌의상으로 용서하엿섯는데 근래에 이르러 권긔오인등은 또다시비밀히 나무뿌리를캐여 숫굽는것을발견하고 사중일동과 화장사청년회에서는 또다시 용서할수업다하야 고소를뎨긔하엿다더라(개성)

약(藥)을가지고 진남포에돌어와 시내모모유지들을 심방하는중이라는데 유지축에서는 그강당소에 귀화하는 무산아동을 동정하야또 거운동정을만히표한다더라(진남포)

## 順天郡에 强盜頻數

### 간일하야두곳에 나타나금전강탈

순텬군동초면장양리(順天郡狀陽里)장용순(張用順)(三一)의집에 지난이십이일밤에 식칼가진강도한명이 드러와서 현금오십원과 백미서말가옷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 그강도는 알듯한자임으로 불원간에 경찰그물에 걸릴듯하다하며 동군락안면 서내리(同郡樂安面西內里)김귀중(金基仲)의집에는지난이십오일 오후두시경에 복면한 강도한명이 군도가튼것을가지고 드러와서 시국을표방하며 무수한협박을 함으로 주인김귀중은집에두엇든 돈을 합하여 이백륙십원을빼앗겻다더라(순텬)

## 儒林會長憤慨

### 직원임명문데로

청주유림회회장민영은(淸州儒林會長閔泳殷)씨는 요사히 돌연히동회장을 사면코자사표를 제출하는 일면에군당국의 너머나 무책임한실태에분개하길마지안는다는데 그내용을 드건대 금년이월경에청주군청 서무과장으로부터 유림회장 민씨에게 말하기를 그당시 향교직원으로잇는 김전희(金典喜)씨가 필경 사면을할터인즉 그후보자를 유림회장이 추천해달나는부탁을 바덧든바 그후권긔향교직원김전희씨가 금년삼월경에 사직하얏슴으로 유림회장 민씨는 지난십칠일에 유림회 총회를소집하고 직원을 추천하엿는데이에까지 아모말이업든 군당국으로부터 지난십삼일로 사주면봉명리남태원(四州面鳳鳴里南泰…

## 河豚中毒頻頻

### 경남동래긔장에서한명참사

지난이십오일 경남동래군 긔장면대변리삼십번디에잇는리경출(慶南東萊郡機張面大邊里三〇李景出)(三五)은 그부근바다에서 복어(河豚)를잡어다가그의두아우를다리고 함께끌려먹은후 중독되여 사망하고 두아우는의사의치료를바더 생명에는 관계가업다는데 리경출은 그어머니와 삼형데가 근근히벌어먹고지내다가 그와가티 비명에죽게되야 그가족의 생활은더한칭처참하게되리라더라(긔장)

## 維新會의 舊幹部反動繼續

### 일마다랑패를당하고도 여전히계획을하는모양

금번함흥유신회(咸興維新會)에서는 그내부를 철저히혁신하야 가지고 신임위원십오인은 주야를가리지아니하고 신규사업으로 도서관(圖書館)설계와 기타 준비에 열중한다는일과 이에대한 반동으로 구간부측에서는어더까지든지 자긔네의 야욕을채워보고야말겟다고 여러가지로 암약을 계속하얏슴은아니라 죄범이아닌 총회까지열고 함부로회의재산을 범하려고 뎀비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요사이에 이르러서 그들야심가중 엇던면장(面長)은 다시자긔네의 직권을람용하야 군내의 각면장들과 결탁한후 권군을통하야 각리구장에게 소위통고문(通告文)이라는것을 발송하얏는데 그내용은 유신회재산일만삼천원을 신임위원들의 손에서 빼앗서가지고 각면에분배할터이니 이달이십오일 장정열다섯사람식 모혀서 이돈빼앗는것을 달나고하얏다는바 이가티 횡포무도하게 면장의디위를 리용하며 직권까지 람용하야 촌민으로하야금 자긔네의야욕을 채이는데의 일종도구를만들고자 하얏스나 순량무구한촌민들은 이것이 옳치아니한일임을 알고 한사람도 참가하지 아니하얏슴으로 참패를 거듭당하게된 커들야심가는 일시는실망을 하얏스나 다시어진백성을 리용하려고 주뢰자면은시내 엇더한곳에 모혀서주야로무슨 흉계를꾸미는중이라고 하더라(함흥)

## 敎育을爲하야 兩師가賣藥商

### 무산학생을위하야 선생이약장사를해

평남룡강군해운면룡정리(平南龍岡郡海雲面龍井里)에잇는 서선학술강습소(西鮮學術講習所)는 그곳주민들의 열성으로작년중에 사천여원의건축비로 강실을새로건축하고 소장조명설(趙永卨)씨와여러선생들의 희생뎍열성으로 교육을하야오든바 금번도 새학긔(學期)부터는 신입생이만히늘어 교실이 협착할뿐아니라 보통학교오학년 뎡도의학생을 교수하기에는 본과실습긔구가미비하야 그것을 유감으로생각하든중 소장 조영설씨와 또가티교편을잡고 애쓰든리석춘(李錫春)량씨는 그사정을 널리 일반사회에 하소연이나하여보기로의론한후 수일권에 매약행상을 나섯다더라(강서)

## 學級延長問題로 泗川公普學父兄大奮起

### 최후의해결이아니되면 적극뎍으로운동할작뎡

경남사천군사천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慶南泗川郡泗川公立普通學校學父兄會)에서는지난이십오일오전부터 당디군수박(朴)씨를 방문하고 학급연장(學級延長)에대한질문이잇섯다는데 그사실의 내용을드른즉사천공보교는 그위치가 군텽소재디일뿐더러 사천(泗川)축동(祖洞)읍동(邑東)삼면의 자데를수용하여오는바 교실의 부족으로 교육상불완전한일이 만흠으로학부형회(同學父兄會)에서는학급연장을군당국에요구하엿더니다 행히 도학무당국(道學務當局)에서도승인할예뎡이라는소식을듯고일반학부형은안심과만족을늣기게되엿스며약십일권에본군수가도령에서 갓든결과

### 사천보교

의학급연장이 확뎡되엿다는말이잇섯는데본군수의 도라온뒤으로부터는 도학무과에서 이문데를 돌변식혀 사천보교는 종전의학급을 그냥두고 그대신에동군삼천포 공보교(同郡三千浦公普校)의 륙학급

### 삼면자데

의큰문데인중 대사건이라고 대소동이 일어나 서천긔와가티 학부형회를 열엇스며 회에서는이것이 무슨 유감인지 다마는 최후해결이 엇지될는지알수업다』는 무책임한말을 할뿐으로 학부형회에서는 하는수업시 도학무과교섭위원삼인을 선뎡하야 동이십륙일에부산(釜山)으로출발하얏다는데 그교섭위원은 아래와갓다더라(사천)

徐德柱 朴理然 劉錫澤

## 안해를혼내랴고 虛僞의阿片自殺

### 쌧쌧하게죽어젓든자가 관장하자는바람에부활 南浦에演出된一幕活劇

강원도텰원(江原道鐵原)에본적을두고 수년전부터 진남포(鎭南浦)에와서『알굴덕이』업을해지내든 후포리(後浦里)사십구번디 김만복(金萬福)(二六)이란자는지난이십일일오후세시쯤되야 돌연히 그안해리(李)(二三)씨를 붓너노코『나는이괴로운세상에서 살맘이업서서 아편(阿片)을 먹고이세상을떠나나니 그대는 내가죽은 뒤라도착한남편에게팔자를곳쳐부귀행복을누리라』는유언한마듸를남긴뒤에는 곳방바다에업드려저 정신을차리지못하고 고민하다가 팔과다리가쌧쌧하게 죽어지매 그안해리씨는 엇전영문인지를 아지못할뿐아니라 뜻밧게 그와가튼 큰변을당하고엇지할줄을모르는중에 달사한란을들한면서 대성통곡을하든중 이웃사람들이 림의원(林醫院)원장림병월(林炳月)씨를 청하야현장에이르러 검시(檢屍)한바협약이아죽순환되고 잇슴으로 진정죽은것은 아니오 반드시 이숨어잇는줄로짐작하고 거창한 수술이나 하라는 듯이다른의사 한명을더 청해오라고 하면서 관장긔계로위선 관창(貫腸)부터하여야하겟다고 하매죽은데하고 잇는 권긔김만복이도 듯기에 좀겁이 낫든지『관장은다해무엇하느냐』고하면서 다시살어일어남으로 또그참경을 동정하든 리웃사람들의 숨흉한다스려지고 오히려 그자의 음흉(陰凶)한 수단을비웃고말엇는데

### 무슨곡절

### 우숨거리

가되고말엇는데 이제그자가 거짓죽은데 한리유를듯건대 그안해리씨가 날마다『어서돈을 모하가지고고향으로도라가자』고 조르는데화증이나서 그안해를 한번혼내이랴고그가튼수단을썻슨것이라더라(진남포)

## 愛子일코自殺코저

### 인천바다물에빠진녀자

이십칠일 오후여섯시경에 인천(仁川)축항안데일잔교(第一棧橋)에서 녀자한명이바다물에 뛰어들어가서 자살코저하는것을 그근처에잇든 배사공두사람이 몰에드러가서 구조해내여응급수당을하며 일방으로는 수상서(水上署)에긔별하야순사가나와 몰을토하게한후 즉시본서로 다려다가 료사해본즉 그녀자는 지난사월에 한강(漢江)에서 무참히죽은행상 홍운식(洪恩植)(一七)의친모인경성부연건동(京城府蓮建洞)이백구십이번디 신우임당(申又任堂)(四五)으로그아들이 죽든날로한강에서 자살하려다가 가족에게 발각되야 못한후 틈을엿보다가 당일오권열한시반에 경성역에서 그와가티 고 인천에와서 그와가티자살하려한것이판명되엿는데그녀자는 정신에이상이생기어홀로보낼수업슴으로동거중인그오라버니신유선(申惟善)을 호출하야 인도하엿는데 급히온신유선(申惟善)의말을드른즉 면누의는 일즉이과부가되야 한갓 그아들 셩취식히기만 생각하고 고생사리를 하다가 아들이죽은후에는 아조실진이되야 무단히 집을 뛰어나감으로 가족들은그를감시중이엇는데 이번에 또그디경이 되엿다 하고 말하더라(인천)

## 남의산의 檀木을賣喫하고 죄는삼촌에게

련천군왕징면작동리(漣川郡旺澄面鵲洞里) 조동식(趙東植)(二三)은 그삼촌조한석(趙漢錫)과그일가한명의공동명의로수만평의산판(山坂)을 가지고 잇섯는데얼마권에 그산판을 경성안국동(安國洞)삼십구번디에사는 윤규영(尹奎榮)이란사람에게 금삼천오백원에 팔기로 하고계약금으로

### 이천원을

먼저바든후나머지일천오백원은 산판의 소유증명(所有證明)이 윤씨에게로 나온뒤에 밧기로하엿든바 조동식은 요사이에 이런방탕한짓을행한나머지에 돈을쓸곳이생겻스나 수중에돈이 한푼도업슴으로 이에악의를 이르커이미윤씨의산이된 그산판에서 바달나무(檀木)를비어팔고자 나무할사람에게는 아즉도 자긔가소유자인것가티 거짓말을한후 자긔삼촌도장과 그일가의도장을 위조하야 드대어 바달나무를 파러써버리고그죄를진두

### 자긔삼촌

에게를씨인후 다라나 버렷는데이 내용을안 윤씨는 시내 종로서에이면 유로고소하야 무죄한 조한석이 가경찰서에붓잡혀가지고오랫동안취됴를 밧다가 결국누죄방면 이되고 마럿다는바 방금동서에서는 조동식을 엄탐중이며그큰 커일반인사는 제죄를 삼촌에게 씨엿다하야 타매를 마지안는다더라

## 自己銃에重傷

### 총을메고너머저서 탄자가터지며부상

함북회녕군 룡흥면룡성동(咸北會寧郡龍興面龍成洞)에사는 조병식(趙炳植)(二六)은산양하려 다니는 포수로서 지난삼일에 산양하려 경흥(慶興)디방에갓다가 산비탈에너머저서 마춤내 고잇든총이 터지면서 재엿든탄환이 포수의 복부를관통하야 중상을당하야 도립회녕의원에와서응급치료를 밧는중이나 생명이 위태하다더라(회녕)

## 失戀한妓生

### 양재물을먹어

군산부(群山府)보성권번(普成券番)기생최소진(崔小進)(二五)은수월권부터 시내엇더한 중매점(仲買店)하는조모(曹某)와가티살다가 그남편이 그만마음이변하야 너는어대로 가라함으로하도어이가업서 남편의 마음을돌리고자 양잿물을 먹엇다고 소동이나며병원에가서치료중인데 아모 념려는업다고하는바 혹섲는오즘을먹고 양잿물을먹엇다고 한것이라고 하는이도 잇다하며 그기생은 조모와정이든후 채까지 팔어먹고지금은 빈궁한 모와형데들이 생활이곤난한디경에 써쳣다더라(군산)

## 纛島公普生 突然盟休

### 석본훈도문데로

석본(石本)이라는 일인훈도가 생도를 무리히란타한 사건으로부터 분규를이르킨 시외독도공립보통학교(纛島公立普通學校)에서는 아즉까지 문데가가려안지안코 분운한중 작이십팔일아츰에이르러오학년생권부오십이명은석본이와가튼교사미테서교육을바들수 업다는 리유로돌연 동맹휴교를하고 마렷슴으로 학부형(學父兄)일동이이에대한선후책을 강구코자동야 여덜시부터긴급히 학부형회를 열고방금 협의중 이라더라(二十八日夜九時記)

## 西鍾面民不安

### 먹고살수도업는중에 도로공사에부역까지

황해도봉산군(黃海道鳳山郡)서종면(西鍾面)에는 여러가지문데로 인심은머단히 흥흥하야 공사에 오백명보다 제방(堤防)공사와 하천(河川)공사에 업서지게 되겟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언제나 공사에 착수가되는 지몰라 탐종도아니하고 하로가리 비인배(空腹)를 주여잡고 집집마다 눈물과 한숨으로세월을 보내고잇는데 또한제방공사와 하천공사에 래왕하러 고흥리(弘里)에서로산리(魯山里)까지 삼간광에길이이뎡보이상이나되는신작로를만드는데면 사무소에서 면민에게 인부를잡아식히게되엿다는 소문이 자자함으로 그곳주민들중 여론이만홀뿐아니라 거긔대분개하야 선후책을토의하는중이라더라(사리원)

## 松林中에屍體

### 목을매여죽엇는데 정신이상으로추측

수원군 송산면 륙일리(水原郡松山面六一里) 리성삼(李成三)(二〇)의맛며느리박씨(朴氏)는 친가인동군음덕면수화리(同郡陰德面水花里)륙백오십삼번디박호병(朴浩秉)의집에근친하기위하야 세살된어린아들을 다리고 와서잇는데그식부(媳父)리성삼은손자가보고십다고 지난 이십사일오권십시경에사돈되는박호병의집에와서자부와손자를반가히보고 점심밥을먹은뒤에 오후두시경에 자긔의집으로 간다하고 작별하고도라갓는데 박호병의집에서거리약삼뎡되는세곡산(細谷山)송림가운데솔나무가지에 목을매어 죽은것을 그이튼날 소관남양경찰관주재소(所管南陽警察官駐在所)순사가 순회중에발견하고 남양의원공의(南陽醫院公醫)와 현장에 출장하야 검시하얏는데 리성삼은 작년십월부터 정신에이상이생기엿든바그로인하야 죽은듯하다더라(남양)

## 衡平社移轉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朝鮮衡平社中央總本部)는지난 이십구일에시내와룡동(臥龍洞)칠십팔번디로이뎐하얏다더라

## 電話簿新製

경성중앙뎐화국(中央電話局)에서는금번 뎐화번호책을 개정하엿는데 그와동시에 필요한 뎐화번호에 관한것도 만드러일반 가입자에게 배부하게되엿는바여긔에는 번호에필요한 주의사항을 간단명료하게써서 사용상 능률증진을도모한다하며 또한금번에 만드는 번호책은 거죽을 푸른빗으로하야 의권번호책과 구별을하야 뎐화회견에 번호의 틀림이업게할 뿐아니라 국문으로 주의문쓴번호책을만드러일반조선사람에게 배부한다고

## 휘파람

▲제주도(濟州島)에서는요사이 중년이상의남녀들이 모히여 부인계(婦人稧)라는 것이되얏다는데 그목은커녕 축제격으로새해 상에표방하야 노코 내용은연관으로일주일에한번식모히여 얼시절사궁능춤이 월어난다든가▲그중에는 다른사람이 그런짓을한다면 넉넉히 비방할만한친구들도 멋멋눈이잇는데 그들은 더구나남보다더못할짓을 만히한다는 평판이만타든가 발월정신을 차리지아니하면텰권이올려라고한다

## 集일흔네아이

### 부모의주의할일

◇옷셥지를당하야 집을일코거리에 방황하는어린아이가 나날이 붊어감으로 일반 어린아이잇는가뎡에서는 주의할것이라 한다 이십륙일오후다섯시경에시내수표뎡(水標町)구십륙번디최귀선(崔基善)의 딸 간란(干蘭)(四)은 집을나간후이내도라오지 안는고로 본뎡경찰서에 수색원을데출하엿고

◇동소문외(東小門外) 김세원(金洗元)의딸옥순(玉順)(二)은 이십칠일 오전한시경에 집을나간후 역시도라오지안는고로 본뎡경찰서에 수색원을 데출하엿고

◇룡산한강통(龍山漢江通)사백삼십오번디박봉순(朴鳳順)의장녀남이(南二)(二)는이삼일권에시내 엇던동모의집에 간다고 집을나와서 신뎡(新町) 거리에 방황하는것을 이십륙일 오후네시경에 본뎡서원이발견하고방금 동서에서 보호중

◇지난 이십사일부터 본뎡서에 보호중이든 약네살가량되여보이는 게집아이하나는 찻는사람이업슴으로 이십칠일에 경성부로인도하엿다고

## 妯娌間에斷指

### 잠간살엇다가필경사망

경남밀양군내이동(密陽郡內二洞)팔백오십팔번디에사는 권상련(權尙連)씨는두며느리가 잇는데 부모에게효성이 지극하야 면동서간에 우애가 잇슴으로항상이웃에서도 칭찬하든바 지난삼월십칠일에 그맛며느리 백경순(白慶順)(三○)은졸연히병이나서 그듯재며느리오소쇠(吳小釗)(三一)가극력간호하얏스나조금도 효험이업고 점점위중하야 지난삼월이십사일에사경에이르러마츰내절명을하는데그동서 오씨는동서의죽음을보고 무명지를 두번이나 끈허서 피를먹엿든바다시소생하얏다가지난일일에마츰내사망하얏다는데이말을 들은일반동민은 오씨의 우애를 표창하기위하야 일간상을주리라더라(밀양)

## 逃走하든處女

### 뎡거장에잡혀가

지난이십이일밤 아홉시경에 경부선밀양(京釜線密陽)뎡거장 부산행(釜山行)과봉텬행(奉天行)렬차가 올지음에 승객으로 대합실(待合室)은매우복잡하엿는데 그중에 이십세내외가량되여 보이는 처녀하나이 갈작청인지매우총망한과색을띄고잇든바별안간나히찬오십이나되여보이는남자가달려와서그커녀를보고『이년어데로 다라나랴고』

## 빗갑프도망

### 기생사고혐의로

시내청진동(淸進洞)이백삼십번디고려사(高麗社)곽춘흥(郭春興)(二三)이라는녀자는지난이십이일에 빗을갑허주고 다려다가 기생노릇을 식키기로하엿든바 다려온지이틀이안되야 이십이일커녁에 슬그머니다라나고말엇슴으로 그자최를 찾는중인데 곽춘흥은 원래부터 광주군중군면산성리(廣州郡中郡面山城里)리재흥(李載興)(三五)이라는 자의 청면과 정이드러 그어히동거할새 여러곳에 질머진빗으로 언하야동거치 못하든 중이번에 고려사를 리용하야빗을갑허버리고 그청면과 함께도망한듯하다더라

## 李氏事件調査

### 사실이판명되야 성토는아니할듯

황해도(黃海道)봉산군(鳳山郡)인데일심한곳에서도 동시에 봉산군에도서종면(西鍾面)이우심하다함은 여러번보도하엿슴으로 세상이다 아는바어니와 이에대하야 누구나동정의 눈물을 아니흘릴수업스므로 불구하고 리달원(李達元)씨가 위로금(慰勞金)을줄필요가업다하는 것이 문데가되야 서종면에서는 면민대회(面民大會)를 열고 위원을 선뎡하야 사실됴사를한바어니와 그후성토까지 한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됴사위원강선량(姜善樑)박영배(朴永培)량씨가 지난 이십삼일오후 세시에사리원(沙里院) 서리(西里) 권성록(權成祿)씨집에서 리달원(李達元)씨를맛나한시간이나 질문과 대답이잇슨후 결과사실이 아니오말이 잘못되야 이와가튼 일이 싱긴것으로 판명된 결과성토까지는하지안케되리라더라(사리원)

## 大邱에棄兒頻頻

### 경찰은범인수색중

지난십구일오권다섯시경에대구부내명치뎡(大邱府內明治町) 텬주교당(天主敎堂)문압헤 눈을뜬채디사오개월되는남자한명을버리어잇더니 이십일에또 나흔지 사오개월 가량되어보이는남자 한명이 버리어잇섯다는데 원인은생활곤난으로 인한듯함으로 소관대구서에서는 엄중히됴사중이라더라(대구)

## 電車에나리다가

### 자면거와충돌되야 소년일명인사불성

이십팔일 오후칠시경에 시내종로우미관(優美館)압흘 진행하는 뎐차에서 나리든 나이 십삼사세 가량되어보이는 아이가 뛰여나리자 뒤에서 자면거가질주하야 오다가 충돌되어 얼굴과입에 중상을밧고곳 경성병원(京城病院)에 입원식히고 응급수당을한결과 생명에는 관계가업겟다하나 방명시경까지 의연히인사불성에 빠졋슴으로 그주소와성명은 알수업다더라

## 老婆死體發見

### 행방불명되엿든지오래만에

함북회녕군 회녕면오동(咸北會寧郡會寧面五洞) 자긔사위의집에잇든 리씨(李氏)(五○)는 집을 나간지 오래된일을 지나도록 도라오지 안는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사위는 사방으로 탐색하든중 지난십사일에 두만강변인 금생동(金生洞)계안(溪岸)에 사톄가 표착된것을발견하얏다더라(회녕)

## 臨農奪耕한者

### 경찰서에도뎡청원

경북성주군읍내(慶北星州郡邑內)부호로 유명한 배상낙(裵相洛)미망인 류일선(劉一仙)은 매년과다한 소작료를밧는다고 일반의 평판이만허오든중 근일그동리소작인 박금조(朴今祚)의 경작하든 토디사두락을 아모리유업시 이작하려함으로 소작인박씨는 금년농사를 준비하노라고 비료까지 내여노핫는데 그비료대금을 청구하여도 주지아니함으로 부득이 그리유를 소관경찰서에 조뎡청구를하엿다더라(성주)

## 技競動運

# 盛況을이루운 蹴球大會

### 培材球場에서 =初日經過續報=

朝鮮體育會主催의第六回全朝鮮蹴球大會의初日인二十八日午後二時半까지의經過는夕刊의旣報한바와갓거니와그後의經過는아래와가트며小中學專門等三團의第一回豫選이잇슨後靑年團固城은棄權不參으로因하야各團의二回豫選을行하엿스며또第三日인二十九日은午前九時부터同場所에서中學團二回豫選부터行하게되얏더라

### 中學一回豫選 高敞2—0協成

鄭寅昌氏主審沈相福朴經惠兩氏線審高敞先蹴으로午前十一時十分開戰(所要時一時間)

◇…前半 全北猛將高敞高普軍은遠距離來征에不顧하고疲困하엿스며協成軍도練習이넉넉하지못한感이不無하엿다前半에得點이업섯스나後續으로協成이敗하얏섯다

◇…後半 協成軍은恢復에努力하얏스나高敞軍의肉迫을입어쌀二點을高敞이익이고또成績으로도익이다

| 高敞 | | 協成 |
|---|---|---|
| 得點二 偶蹴一 | | 得点零 隅蹴四 |
| 金寶石 | G | 李義恒 |
| 申鳳燮 | RF | 元鍾五 |
| 金鎭初 | LF | 楊寅業 |
| 徐炯南 | RH | 李成鋼 |
| 高在千 | CH | 朴明渺 |
| 朴東鎬 | LH | 宋興奉 |
| 鄭寅源 | RW | 朴昇燮 |
| 朴東洙 | RI | 孫基澤 |
| 金容泰 | CF | 康建斗 |
| 趙舜涓 | LI | 金世一 |
| 徐龍淳 | LW | 尹澤俊 |

### 專門一回豫選 法政3—0世醫

韓麟高氏主審金鍾고崔發萬兩氏線審世醫專先蹴으로十二時三十一分開戰(所要一時間)

◇…前半 世醫專軍은弱한데練習이不足하고法政亦是넉넉지못하나體質에잇서서法政은世醫專보다强하얏슴으로開戰한지不過몃分에隅蹴를當하얏섯고또前半後期에쌀한點을法政이익이엇다

◇…後半 世醫專軍은最後의勇을다하야陣勢를恢復하고必死의力을다하얏스나效를엇지못하고世醫專이敗하다

| 世醫 | | 法政 |
|---|---|---|
| 得点零 隅蹴一 | | 得点三 隅蹴四 |
| 金点福 | G | 鄭敬敎 |
| 李重徹 | RF | 徐光正 |
| 李麟榮 | LF | 裴鎭鎬 |
| 李白奎 | RH | 張鎭東 |
| 南基夏 | CH | 薛白承 |
| 李永旭 | LH | 張世基 |
| 金星弼 | RW | 康根斗 |
| 崔午植 | RI | 申錫模 |
| 李謙浩 | CF | 李東根 |
| 崔在裕 | LI | 成基泳 |
| 尹敬皓 | LW | 高社龍 |

### 普專1—3崇大

徐丙羲(前半)鄭寅昌(後半)兩氏主審張權朴鍾惠兩氏線審崇大先蹴으로初日午後二時七分부터開戰(所要一時間)

◇……前半 昨秋基督蹴球大會에專門團의優勝權을잡은崇大軍은西道의定評이잇는터이요普成專門軍은自信잇는强림으로올培材의選手도석기엇다普專이多少攻勢를取하야쌀한點을엇고이어서『킥교퍼』의失策으로또한點을貧하야同點이되다

◇…後半 普專軍이門을박고아서부터콘너를當하얏스나崇大는攻守에더욱元氣를내이어드듸여普專軍이기울다가最後五分가량을남기고數次壘門射擊을하야恢復의運은왓섯스나崇大守備亦是堅固하야水泡에歸하다

| 崇大 | | 普專 |
|---|---|---|
| 得點三 隅蹴三 | | 得点一 隅蹴一 |
| 鄭敬允 | G | 李漢雨 |
| 李東弼 | RF | 郭莊範 |
| 金郁 | LF | 韓宅柱 |
| 李擢楡 | RH | 李世玉 |
| 黃元敬 | CH | 朴致陽 |
| 金世炯 | LH | 安周植 |
| 趙承一 | RW | 張應辰 |
| 李昌雄 | RI | 宋世範 |
| 朴元貞 | CF | 李漢相 |
| 金允燮 | LI | 金鵬重 |
| 金善明 | LW | 金三泰 |

### 延專2—0高農

徐丙羲氏主審 朴鍾惠金鍾萬兩氏線審延專先蹴으로午後三時五十分부터開戰(所要一時間)

◇…前半 延專은培材의前猛將李榮敏君을『센트포드』로두어매우氣勢가强하고또備守가堅固하얏스며水原高農軍도陣勢가매우沈着하야兩軍의形勢는實로莫上莫下하얏다 공은高農의門前에서몰리드듸여數次의콘너를내이엇스며李榮敏의妙蹴과몰이들변도하얏섯다파싱에李基重킥으로貴重한한點을先取하얏스며高農이페날틔킥을當하야危機一髮이엇스나免하고다임이되다

◇…後半 元氣旺盛의延專軍은南城의雄將高農을攻擊하기에여러번敵陣을엿보앗스며또페날틔킥한點을또어더數次攻勢를取하다가畢竟쌀한點을더어더延專이二對零으로익이니이것으로大會의第一日은終了되다

| 延專 | | 高農 |
|---|---|---|
| 得點二 隅蹴二 | | 得点零 隅蹴五 罰蹴二 |
| 李寶運 | G | 張錫天 |
| 林炳斗 | RF | 崔承說 |
| 郭周謙 | LF | 李炳淵 |
| 鄭雲樹 | RH | 金在裕 |
| 李榮敏 | CH | 任大淳 |
| 李正國 | LH | 李稷淳 |
| 李基重 | RW | 尹楨晧 |
| 禹信基 | RI | 崔玉童 |
| 朴泰三 | CF | 權春圓 |
| 全明爵 | LI | 趙寬燮 |
| 李鍾圭 | LW | 趙命植 |

### 專門準決勝抽籤

專門學校團第一回豫選이順序대로마친後準決勝(第二回)의抽籤을行한바延專對法政戰이마치고崇大對法專戰이잇슨後兩케에임勝者로決勝을行하게되얏다